

# 장수군, 축분 문제 해결 총력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 축분 자원화·효율성 극대화로 해결책 마련 노력

장수군이 축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부터 '장수한우 축분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당면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의 간담회, 부서간 협의회, 전문가 지문, 축분처리업체 현장실사, 농가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여론에 귀 기울이는 이유다.



장수군이 축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적으로 투입한다. 그 결과 지난해 2개소였던 수거업체가 올해는 3개소, 내년에는 4개소 운영돼 축분 위탁 수거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 시 '관내 공급되는 유기질 퇴비 가격을 포함 400원 이하 공급한다'는 선결 조건을 명시해 경쟁축산농가의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여 관외 퇴비 판매 확대를 노리고, 퇴비공급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연계 효과를 기대한다.

군은 축분 수거와 소비를 확대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사료포 퇴비 살포 사업'에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조사료 살포농지 175ha에 유기질비료 35만포(약 4,400두분) 시비로 지력을 증진시키고, 조사료 생육을 도와 생산량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등 축분 위탁 수거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 더불어 축분 적정 관리와 악취 저감은 물론, 사양 개선을 통한 가축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전 축종에 대해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최고 수준의 지원으로 군은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수거업체에서 톱밥 및 왕겨 등 수분조절제가 섞인 축분을 수거해 빠른 발효를 가능하게 하고, 유기질 퇴비화 공정 단축으로 신속한 처리와 양질의 퇴비 생산을 이끈다. 특히 축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장수군은 △스키로터 장비 지원사업 △퇴비사 지원사업 △환풍기 지원사업 등 자가 처리 축분도 양질의 퇴비화를 통해 농경지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

이군동 축산과장은 "군은 축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 간 협업으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며 "농가에서도 철저한 악취 저감 노력 및 수분조절제의 적절한 사용과 교반환기 등 부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설치·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일손 돕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농업정책과에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군청 내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자원봉사센터, 농협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일손 돕기 동참 독려에도 함께 나서고 있다.

또한 수박, 고추, 토마토 등 불철에 필요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국인 중심의 농촌인력증개센터 4개소,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주는 공공형 외국의 계절근로자도 4월 26일 도입되어 42명이 4개 권역으로 분산배치되어 운영 중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에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영농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인력부족 해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청소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진안군은 제52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스무 살이 되는 관내 청소년 157명에게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한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며,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로 군에서는 2021년부터 20세가 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다.



으며 오는 20일 성년의 날에 받아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번 카드는 진안의 청소년들에게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멋지게 설계하여 도약하길 바란다."는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았

## 진안군, 군정발전 유공자에 감사패 수여

진안군은 지난 13일 군수실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진안연세안과의원 원장 김용국 △용담면 이경숙 △마령면 오재희 씨에게 전달됐다.



에 공헌한 바가 있다.

전춘성 군수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살기 좋은 진안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용국 원장은 군민의 안과 전문 진료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으로 활성화에 기여 했으며, 이경숙 씨는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호떡 나눔봉사를 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오재희 씨는 진안군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부지확보에 적극 협조하는 등 군 정책 사업

## 무주군의회, 세입·세출 결산심사 역량 강화

### 예·결산 전문가 초빙 직무교육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교육을 진행하고 예산·결산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집행력을 높였다.



무주군의회의는 지난 14일 최북미술관에서 세입·세출 결산심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무주군의회 의원은 7명과 직원 등 26명이 참여한 교육은 결산을 다루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진행했다. 교육은 결산서와 재무제표 이해력을 높여 결산심사의 내실을 다지고 직원들이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법적 근거와 현황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정화 교수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입법조사관, 기획

관리관,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예·결산 심사 등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전문가이다. 이 교수는 이날 예·결산 과정의 원칙을 설명하고 흔히 발생하는 오류나 해석에 대해 강의하며 지방의원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

이해양 의장은 "결산은 예산과의 연동이 중요하다. 지난 일이라고 소홀해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